쌍용건설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졸업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워크아웃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쌍용건설이5년 7개월만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끝마쳤다.

쌍용건설은IMF 외환위기전까지만해도 해외 고급 건축물 시공 실적 1위, 국내 도급순위5위를기록했던국내굴지의건설업체였다. 특히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는수주실적이워낙많아현지인들로부터" 한국 최대의 건설업체는 쌍용건설 "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탄탄대로를 달려오기만한쌍용건설에위기가닥친것은 1997년IMF 외환위기때였다.

쌍용자동차 매각시 떠안은 부채 약 1,600억원과 IMF 외환 위기 당시 발생한 미수금약 3,700억원및고금리에의한현금 유동성 악화로 인해 회사의 존폐를 알 수없는심각한위기를맞게된것이다.

" 그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거치면서도동요하지않고회사의 경영 정상화에만 매진해준 직원의 노력 덕분에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

쌍용그룹의회장으로있다가채권단의요청으로5년만에쌍용건설로돌아온김석준 쌍용건설회장은5년여에걸친워크아웃기간중에가장어려웠던점으로' 직원들의마음을얻는것 '을꼽았다.

" 직원들의마음을얻는것이가장힘들었습니다. 사세를 키우는 것은 쉽지만 줄이는 것은어렵다는것을실감했지요. 2,300명이던 직원을 한때 800명까지 줄였고 임원도 40명에서현재13명으로줄인상태입니다. "

쌍용건설은조직및인력을50% 이상줄이는등강도높은구조조정과보유자산매각, 수익성위주의내실경영등을통해지난해 경상 이익 55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성공했다. 올해에도3조원대의안정적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상반기에만 340억원의 경상 이익을 기록하고, 연말에는 600억원대의 경상이익과 160%대의 부채 비율을 달성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쌍용건설은도심주상복합의붐을일으킨 ' 경희궁의 아침 '을 비롯해' 부천 상동 스윗닷홈 ,'' 부산 사직동 스윗닷홈 '등 서울 및 수도권과 부산에서 대형 주택 사업을 성공시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3월코스닥퇴출위기를맞았을때직원들이 퇴직금을털어자사주식320억원어치를매입한것이기업회생에결정적인역할을한 것으로평가받고 있다. 그만큼쌍용건설의 정상화는 노사 화합과 틈새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발빠른 행보, 철저한 사업성 검토시스템등이주요원동력이되었다는 평가다.

" 이번 워크아웃 졸업을 계기로 국내외 신인도제고와자율적인경영환경구축을 통해시장상황에보다유연하게대처할수 있는능력을갖게된것이가장큰의의 "라는김회장은최근리모델링사업을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다.

" 거창하게말하자면재건축은시간과비용상상당한낭비가있습니다. 옛날건물들 도골조는튼튼해문제가없는데무조건부수고새로짓는것보다는리모델링이오히려대안이될수있지않을까요? 현재주택 경기가 매우 경색되어 있지만 주택 시장과 실수요자가 있는한 우리밥그릇을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

김회장은앞으로' 투명경영 '과' 정도경영 '을 대원칙으로 내실 경영에 주력하겠다면서" 한때는 그룹회장까지했었지만 지금은쌍용건설의CEO"라며," 가장가까운곳, 즉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경영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밝혔다.

김회장은또최근세간의관심이집중되고 있는 ' 종업원지주회사에 대해 " 국내에서는낯선제도이지만한번쯤시도해봄직한 경영체제 "라고말했다.

김희경 · 기자 khk@cerik.re.kr